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무역적자 6개월만에 최대... 수입 증가 탓

[미국 금융]

- WSJ: 미 재무부의 1조달러 부채 규모, 시장 안정성 위협
- CNBC: 옐런 재무장관, "일부 작은 은행들 통합할 것" 예상
- CNN Business: "지금은 실제 약세장 일수 있어 신중해야"

[뉴욕]

- Bloomberg: 뉴욕시 지금이 최악의 공가 오염...캐나다 산불 탓

[모기지율]

- 모기지율 하락 불구, 수요는 감소

[자동차 시장]

- 고금리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 내려간다

[글로벌 경제]

- CNBC: 5월 중국 수출, 작년 대비 7.5% 줄었다.
- WSJ: 세계은행, 올해 글로벌 성장 상향 조정. 내년엔 하향
- OECD,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에 시달리는 약한 회복세 예상"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애플과 매타의 싸움은 가상 현실로 몰린다
- CNN Business: 코카콜라, 게이머를 위한 새로운 소다 출시

[보고서]

-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 CSR, 생성 AI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to Largest in Six Months on More Imports

미 무역적자 6개월만에 최대... 수입 증가 탓

-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든 탓이다.
- 즉,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적자가 전달에 비해 23% 늘어난 (1백40억달러 증가한) 7백46억달러였다.
-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가 1.5% 증가한 3천2백36억달러인 반면에 수출은 3.6% 줄어든 2천4백90억달러였다.
- 수입 증가 품목은 주로 자동차와 부품, 산업용 공급재, 모바일 폰, 다른 가구재였다. 오일과 보석류 수출이 줄었다.
- 적자폭 확대는 2분기 국내 총 생산에서 무역이 감소할 것을 시사하다. 해외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소비재 상품을 위한 탄력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셈이다.

[미국 금융]**WSJ: Treasury's \$1 Trillion Debt Deluge Threatens Market Calm**
미재무부의 1조달러 부채 규모, 시장 안정성 위협

- 투자자들은 부채 상한선 싸움의 여파로 1조 달러가 넘는 국채가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금융 시장의 새로운 변동성을 만들수 있는 상황이다.
- 월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부채 상한선 협상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되었던 8천5백억달러의 채권 발행이 (JP 모건에 따르면 지금부터 올해 9월말 사이에 판매 예정) 구매자들을 압도시키고, 시장을 뒤흔들어,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 큰 격변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매일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에 예 기대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2019년 유동성이 부족했던 시기에 머니마켓 금리가 급등하여 연준의 개입이 필요했었다.
- 상장지수펀드 제공사인 Global X의 최고 투자책임자인Jon Maier은 “엄청난 부채를 시장에 쏟아 붓는 것은 시장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 기사

CNBC: Treasury Secretary Yellen says she wouldn't be surprised to see more bank consolidation**옐런 재무장관, “일부 작은 은행들 통합할 것” 예상**

- 그는 수요일 CNBC에 출연, 은행들간에 통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통합이 이뤄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추가 통합 때문에 다양한 은행 시스템이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은행이 겪고 있는 수익 압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또한 은행들이 앞으로의 구조조정과 어려움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CNN Business: They said we were getting a recession. Instead, we're getting a bull market**“지금 실제로는 약세장일 수 있어 신중해야”**

- S&P500 지수는 10월 저점 대비 20% 가까이 상승하여 강세장에 근접해 있다. 즉 주가 상승과 월가의 낙관론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에 있다.
-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당분간 신중하라고 말한다. 여전히 강세장의 탈을 약세장일 수 있다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어제 화요일 S&P 지수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도달했다. 지난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한 수치다.

- S&P 500 지수가 4,292.44 이상으로 마감하면 시장은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기술및 미디어와 같은 2022년 패자 산업에서 최악을 상황이 끝났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 최근 발생한 부채 한도 위기 종식,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중단 소식, 각종 경제 지표의 호조가 모두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분석가들은 이곳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세장 랠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Sameer Samana는 “경기 사이클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올해말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며 “월스트리트 호황과 경기 침체가 동시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시점이 짜릿한 약세장 랠리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기술 기업을 쫓아가기 보다는 처리해야할 포트폴리오에서 이를 정리해서 변동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CNN 비즈니스

[뉴욕]

Bloomberg: New York Has World's Worst Air Pollution as Canada Wildfires Rage

뉴욕시 지금이 최악의 공기 오염... 캐나다 산불 탓

- 스위스의 대기 공기 회사에 따르면 오늘 수요일 새벽에 뉴욕시의 공기 오염 수준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평소 인도 수도 델리와 바그다드 오염 수준보다 높다는 것이다. 현재 특히 디트로이트가 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뉴욕시장은 화요일 밤 성명을 통해 뉴욕시 5개 보로에 대기질 건강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수요일 아침에 개선되다가 오후에는 다시 악화할 예상된다고 밝혔다.

[모기지]

CNBC: Mortgage demand drops despite rates coming off recent highs

모기지율 하락 불구, 수요는 감소

- 지난주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율이 6.91%에서 6.81%로 감소했다 (융자 차입규모 72만6천2백불 이하의 경우).
- 그런데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자 숫자는 지난주에 2% 줄어들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수요가 27% 줄어든 것.
- 모기지 금리는 최근 최고치에서 하락했지만 수요는 4주째 연속 감소했다.
- 한편 모기지 은행 협회(MBA)의 계절 조정 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1.4% 감소했다.

CNBC 기사

[자동차 시장]

CNBC: Used car prices are falling as sales soften amid high interest rates

고금리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 내려간다

- 중고차 도매가격이 5월들어 올해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고금리에 다 소매가격 인플레이 현상 때문에 판매도 줄어들었다.

- Cox Automotive는 오늘 수요일 미국 도매 딜러 경매에서 판매되는 차량을 추적하는 만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7%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 Cox보고서에 따르면 5월 중고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China's exports plunge by 7.5% in May, far more than expected
5월 중국 수출, 작년 대비 7.5% 줄었다.

- 중국의 5월 수출이 작년 동월에 비해 7.5% 줄었으며 로이터 설문조사 예상치보다 0.4% 이상 감소한 수치라는 것.
- 수입도 작년 동월에 비해 4.5% 줄었는데 로이터 설문 예상치 8% 급감 보다는 낮은 수치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절적인 요인과 수출 가격 변화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연초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

CNBC 기사

WSJ: World Bank Brightens View of Global Growth This Year,
Downgrades 2024
세계은행, 올해 글로벌 성장 상향 조정. 내년엔 하향

- 당초 예상보다 올해 글로벌 성장을 상향 조정했다.
-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당초 1월에 예측한 1.7% 성장률보다 높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새로운 추정치는 작년의 3.1% 성장률에 비해서는 여전히 둔화된 수치입이다.
- 이같은 상향 조정은 미국 소비자 지출과 중국의 예상 재오픈 보다 빠른 재개 때문이다.
-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 특히 강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 은행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부정적인 충격들이 겹쳐있다”고 진단했다.

WSJ 기사

Bloomberg: World Economy Set for Weak Inflation-Plagued Recovery,
OECD Warns
OECD, “세계 경제가 인플레에 시달리는 약한 회복세 예상” 경고

- 요지: 2023년과 2024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은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 중앙은행들은 주요한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OECD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와 물가 압력을 억제하려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제약적인 조치 때문에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의 충격에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 내년에는 2.9%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 이는 팬데믹 이전 7년 기간의 평균치인 3.4%보다 낮은 수치.
- 그리고 미국과 유로지역, 중국의 경기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인플레이는 지난 2019년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The rivalry between Meta and Apple is moving to a new playing field: virtual reality 애플과 메타의 싸움은 가상 현실로 몰린다

- Apple이 Facebook의 핵심 광고 사업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한 수개월후에 , Facebook은 Meta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가상 현실로 초점을 전환했다.
- 이후 2년이 채 안 걸려 애플은 메타의 사업에도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었다.
- 애플은 이번주 월요일, 수년 만에 가장 야심찬 제품 출시 중 하나로 혼합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mixed reality headset)를 공개했다. Meta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다.
- 메타 역시 메타 퀘스트 3이라는 헤드셋을 공개했는데 이는 새로운 혼합 현실 기능, 더 세련되고, 편안한 디자인을 약속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Coca-Cola's newest flavor is aimed at gamers 코카콜라, 게이머를 위한 새로운 소다 출시

- 코카콜라가 주류 식음료 브랜드에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게이머를 위한 새로운 한정판 맛을 출시한다.
- 제품명은 Coca-Cola Ultimate. 이 소다는Riot Game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 이 제품은 6월 12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매장에서 한정 기간 동안 일반 및 무설탕 제품으로 판매될 예정인데. 전 세계에서는 무설탕으로만 출시되며 이번 주에 출시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Harvard Business Review: Generative AI Will Enhance — Not Erase — Customer Service Jobs

CSR, 생성용 AI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업무 세분화:** 고객 서비스(CS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의 업무는 13개로 세분화 되는데 이 중 4개는 AI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 (조직 운영, 지시 등), 4개는 완전히 자동화 될 수 있는 업무(가격 결정, 결제 등), 5개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하는 업무(문의 응답, 홍보 등)이다.
- **사람의 전문성에 프리미엄 부여:** 생성형 AI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 업무에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술은 CSR에게 판단력, 통찰력, 도덕적 추론, 혁신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작업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생성형 AI 성능 유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속적인 개선 추구:** 생성형 AI는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CSR 조직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CSR의 리더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 **시스템과 고객이 일치하는가:** 생성형 AI 시스템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지, 고객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작업이다.
- **고객 상호작용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대화형 AI가 사람의 특징과 성격을 모방하는 것은 사용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좋다. 하지만 CSR은 초래 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해야 한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편향성 관리:** 기업은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CSR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잠재적 편견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윤리적 기계 행동 보장:** 대화형 AI는 설득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감정적, 인지적 편견을 악용 할 수 있기 때문에 CSR은 윤리적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임세민.

하바드 원문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1%로 소폭 상향..."내년까지 약세"

1월 1.7%에서 0.4%P↑, 작년 성장률보다 1%P↓..."통화정책 추가긴축시 악화"
선진국 올해 0.7% 전망...美 '금리 급등 여파' 올해 1.1%, 내년 0.8% 예측

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긴축 통화 정책 등의 여파로 내년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WB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1.7%보다 0.4%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WB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으로 내년에는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은행 부문의 압박이 확산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통화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될 경우 글로벌 성장은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B는 "단기적으로 약한 성장 전망과 고조된 위험은 대유행과 러시아의 침공, 글로벌 금융상황의 급격한 긴축이라는 중첩된 상황으로 인해 악화해 온 잠재적 성장의 장기적인 둔화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 부문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요구한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 기후 변화 완화, 부채 곤경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구현,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발전의 길로의 기반 설정을 위한 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6%에서 올해 0.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은 올해 1.1% 성장한 후 2024년에 0.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주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걸친 금리 급등 여파 때문으로 WB는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작년 3.5%에서 올해 0.4%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WB는 긴축 통화정책과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 탓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5.6%, 내년 4.6% 성장이 각각 예상됐다.

WB는 중국이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부 경제 대국의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올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반대로, 그 외 지역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경제는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W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성장에 지속해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모든 지역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에는 예측보다 더한 글로벌 금융 압박과 더욱 지속적인 국내 인플레이션이 포함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 분쟁과 사회적 불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하방 위험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런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잠재 성장을 더욱 약화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EMDE)이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WB는 경고했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는 "빈곤을 줄이고 번영을 확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을 통한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예측이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흐름을 바꿀 기회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EMDE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는 것으로도 지적됐다.

WB는 "주요 중앙은행의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적절한 소통을 통해 해로운 파급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며 "EMDE가 세계 및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WB는 저소득 국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28개 저소득 국가 중 절반이 부채로 고통받는 고위험국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을 위한 여지를 만들려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며 부채 관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년 경기침체 진입 우려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2bp]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융주 및 기술주 강세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매수 증가하며 0.4% 상승

[환율*]: 달러화지수는 다음 주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하락, 약보합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6월 금리동결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4월 제조업 수주 부진 등으로 1bp 하락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